

# 경찰 확 풀어놨는데… 더 큰 치안구멍

탈주범 절도 500m 인근서 강간 미수 발생

도심 유괴 미수까지… 광주 ‘4대 악’ 척결 무색

탈주범 이대우가 광주로 잠입, 절도 행각을 벌인 장소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10대 여성들 상대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대우의 행적을 헤쳤다가 수천명을 동원,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가 하면 ‘4대 악’ 척결에 집중하는 시기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경찰 치안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새벽 4시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단독주택에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괴한이 침입해, A(19)양

을 위협, 성폭행하려다 그대로 달아났다.

범인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 A양에게 “조용히 하면 해치지 않겠다”고 말하며 성추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A양이 격렬하게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지난 20일 탈주범 이대우가 현금 30만 원 등을 턴 마트에서 직선거리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당시 광주경찰은 이 일대에서 정순도 광주지방경

찰청장 주재로 현장 수사 회의도 열었고 이후 탈주범 이대우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수천명의 경찰 인력을 풀어 검문 검색을 강화해왔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범인이 현관문 잠금장치가 풀려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주변 도로에 CC-TV(폐쇄회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이곳 지리를 잘 아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지난달 2일 밤 11시40분께 서구 화정동 신세계 이마트 인근 버스

승강장 앞길에서 김모(여·24)씨가 괴한에게 강제로 끌려가던 중 탈출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이 성폭력·불량 식품·가정 폭력·학교 폭력 등 4대 악 근절에 치안력을 집중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성폭력 등 ‘4대 악’ 사건은 잇따르고 있어 한 곳에 경찰력이 집중되면서 되레 치안 공백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특히 사건 단서를 찾는데 CCTV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영동한 곳에 CC-TV가 설치돼 있거나 애에는 곳도 많아 허술한 치안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신출귀몰’ 탈주범 이대우 서울 잠입

## 종로서 교도소 동기 만나

지난달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다 수갑을 채 달아난 이대우(46)가 최근 서울 종로 등 도심에까지 몰래 잠입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지난달 20일 도주한 이후 2주 동안이나 ‘신출귀몰’ 도피 행각을 보이며 전북, 광주경찰의 검거망을 뚫고 서울 시내에 잠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의 ‘뒷북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대우는 지난달 27일 또는 28일께 서울 종로 인근에서 교도소 동기와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1일 다시 만나기로 했으나 이대우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인력이 대거 잠복에

들어갔으나 허탕만 쳤다. 전과 12범인 이대우는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교도소 동기와 함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돌며 150차례에 걸쳐 6억700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전문 절도범이다.

경찰은 이대우가 도주 당시 광주 월산동 한 마트에서 현금 30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사실을 파악했을 뿐 이후 그의 행적을 거의 간파하지 못했다. 지난주 초 이대우가 서울에서 지인을 만나던 시기, 광주경찰은 1000명을 동원,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그 사이 이대우는 수도권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경찰은 서울 잠입에 관한 첩보조차 약 일주일이나 늦게 입수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 만취운전 사망사고 낸

### 치과의사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치과의사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한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500인 교육 원탁토론

지난 1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500인 원탁토론’에 참가한 학생·학부모·교사들이 ‘우리 손으로 만드는 행복한 학교’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승진 당일 경찰간부 권총자살 시도 왜?

### 광주북부서 경위 중태… 경제문제·불화설 등 조사

지난 1일 승진한 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에서 권총 자살을 시도했다.

지난 1일 오후 3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부경찰서 용봉지구 대 2층 체력단련실에서 이 지구대 소속 A(48)경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경찰관

이 발견했다.

A경위는 광주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2일 오후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경위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5연발 38구경 권총으로 왼쪽 허벅지와 머리에 실탄을 한 발씩

을 한 점으로 미뤄 업무 스트레스로 이 같은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평소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A경위가 사무실에서 자살을 시도한 이유 등을 들어 동료 간 불화설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A경위가 경제적인 문제로 당직 수당이 있는 지구대 근무를 희망한 점으로 비춰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다가 이 같은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말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빗물 넘어온다’ 이웃집 지붕 파손

▶슬레이트를 태고 빗물이 넘어온다며 옆집 지붕을 파손한 70대 남성이 경찰서행.

○~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정모(70)씨는 1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이모(여·72)씨의 슬레이트 지붕이 잘못 설치돼 자신의 집으로 물이 떨어진다며 대나무로 이씨의 슬레이트 지붕을 내려쳐 일부를 파손했다는 것.

○~정씨는 최근에도 비슷한 이유로 슬레이트를 파손해 벌금 30만원을 물었는데, 경찰은 “이웃 사촌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끝내 폭력으로 번졌다”며 한마디.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할머니 막말 동영상 파문  
순천제일고생 2명 ‘퇴학’

요양시설 할머니에게 막말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은 온라인에 올려 파문(광주일보 5월 29·30일 6면)을 끊은 순천제일고 학생 2명이 지난 31일 퇴학처분을 받았다.

학교측은 동영상 파문을 일으킨 학생 2명에 대해 31일 오후 6시를 기해 최종 퇴학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들 두 학생이 지난 29~31일 시한의 전학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최종 퇴학처리를 하고 31일 서면으로 퇴학을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 大山프리모남녀가발

23년간  
약 1만명

시술경력  
가발명가

59  
만원

신제품 가격비교가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 핀X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삼기1동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